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경기, 지속가능 공존공영 ‘어깨동무’

금품수수·무자격 ‘NO’
부정선거 시비 최소화

농식품부, 3월 8일 치러지는
조합장선거 대비 점검회의

김관영·김동연 지사
지방정부 상생발전 합의

창업·벤처 활성화
커뮤니티 운영 지원
재생에너지 협력 등
8개 조항이 주요 내용



17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도와 경기도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이 열린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실무자들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와 경기도가 양 지방정부의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꾀하며 지속 가능한 공존공영을 위한 8개 과제 추진에 힘을 합쳐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와 경기도는 17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을 갖고 ‘창업·벤처 활성화 커뮤니티 운영 지원’ 등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다.

상생발전 업무협약은 전북도와 경기도가 지난 서로의 강점을 잘 활용하고 상호보완하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이 협약을 통해 전북도에서는 경기도에 구축돼 있는 각종 인프라와 정보 기술적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고, 경기도는 전북도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품질 좋은 농산물 먹거리 등을 제 공받을 수 있어 상호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양 지방정부가 채택한 ‘상생발전 합의문’ 주요 내용은 △2023 새만금 세계잡페스티벌 참가신청 및 홍보협력, △재생에너지 공동협력 및 수소생산 체계 구축, △전북-경기 청소년 교류 활성화 등 8개로 구성돼 있다.

합의문이 담고 있는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창업·벤처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 시행되는 고흡차량 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모델을 구축하며,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상호 협력방안 마련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8월 새만금 일원에서 개최되는 전세계 지구촌 청소년들의 축제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잰페스티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전북도와 경기도 청소년들이 폭넓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양 기관에서 노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 분야에 대해서도 경기도 학교급식에 전북의 친환경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전북-경기에서 운영 중

인 농수산물 온라인 쇼핑몰(전북생생장터, 마켓경기)에 상호 입점함으로써 농수산물 판매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항생제 잔류 등 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위해물질 시험연구 등을 공동으로 수행해 수산물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경기도와의 상생발전 업무협약은 민선8기 첫 번째 광역지자체와 맺는 매우 의미있는 행사로, 상호 간 좋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상생 번영의 교류·협력을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로가 합의한 창업·벤처 분야, 고흡차량기부제, 재생에너지·수소산업, 청소년 교류, 친환경농산물 공급, 수산물 안전성

검사 등을 함께 지원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두 광역지자체는 함께 성장을 넘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 대한민국 변화를 이끌어 가는데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북도에서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맺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번 협약 이후에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로 제2의 업무협약 맺기를 희망한다”며, “거창한 현안도 있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도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상생발전 업무협약은 전북도와 경기도가 힘을 모아 동반성장하고, 지속적으로 교류 협력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전북도와 경기도는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 는 한편, 양 지방정부의 긴밀한 소통 과정을 통해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업 들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2차 협약을 체결해 나가 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양 지방정부 지사들은 상 생발전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고흡차 량기부제 홍보와 기부 동참을 위해 상호 기부하고 양 지역의 고흡차량기 부제 활성화를 응원하기로 다짐했다.

이번 상호기부는 두 지역이 올해 고흡차량기부제 시행을 맞아 서로 성공 적 추진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김재훈기자

내년 1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시도’

정부, 전자관보 통해 특별법 공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17일 정부 전자관보에 공식 공포됐다.

이로써 128년동안 사용했던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역사로 기록되고 내년 1월 18일부터 향후 100년, 1000년을 이어갈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되며, 국무총리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가 설치

돼 행정적, 재정적으로 우선 지원을 받는다.

또한 특별법 특례를 통해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부의 특별지원이 가능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

계의 별도 계정을 설치해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률 공포로 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특례를 적극 부여하고 지원하는 등 도지사의 권한이 확대

되고 새만금특별법과 함께 동·서부·내륙권의 균형 상생발전의 양대 발전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전북도는 곧바로 3개팀의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중앙부처와 강원 등과 협조체계를 가동했다.

또한 도민대상 홍보 활동을 통해 도민 공감대 확산 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도와 시군을 포함해 도정을 대표하는 전북연구원, 산업분야를 대 표하는 전북IP 등 전문역량을 총결집해 비전 단계부터 특례 발굴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내실있는 특례정책 추진으로 도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며,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각계각 층의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산업, 재정, 문화, 복지 등 전북형 특례 정책 발굴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많은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재훈기자

장수물 MALL JANGSUMUL MALL

"장수군 농특산물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NAVER 장수물 www.장수물.com